

<p>민 지 실</p> <p>음 혜 천</p>	<h1>BUDDHANARA</h1>	<p>FAITH WISDOM ACTION</p>
---	---------------------	------------------------------------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을 밝힌다.

###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법회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  
 첫째주 일요일 11 시 초하루 인등기도 법회 및 새로운 찬불가 배우기  
 셋째주 일요일 11 시 : 전법 기도 법회 및 새로운 찬불가 배우기



### 조지아주 애틀랜타 법회 (신년 법회)

둘째주 일요일: 정기법회 오전 11 시 - 오후 1 시  
 Pinckneyville Park 에 있는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Room # 5

새벽기도: 아침 6 시 30 분 - 7 시 (아침예불 및 참선)  
 (새벽기도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사찰에서 아침공양을 제공 합니다.)

###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erdag 9am. (매주 토요일 9 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 이달의 법구경

적과 적 서로 상처 주듯,  
 증오심 가진 사람  
 다른 사람 해치네.  
 바른 길 벗어난 마음  
 이 보다 더 큰 상처  
 자신에게 입히리.

An enemy can hurt an enemy,  
 and a man who hates can harm another man;  
 but a man's own mind,  
 if wrongly directed,  
 can do him a far greater harm.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http://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10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영축총림 방장 원명스님 동안거 해제법어  
“당당하게 본분 향해 나가보라”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스님이 기축년 동안거 해제를 앞두고 오늘(2월 24일) 해제법어를 발표했다. 원명스님은 “해제하고 나서는 대중들은 당당하게 본분을 향해 나가 보라”며 “그랬다가 영축산으로 다시 돌아와 살찌고 맛난 향기로운 풀만 먹는다는 백우처럼 참 선지식이 되어 인천(人天)의 스승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끊임없는 정진을 당부했다.

다음은 영축총림 방장 원명스님 동안거 해제법어 전문.

冬安居解制法語

설후시지송백조(雪後始知松栢操)요  
사난방견장부심(事難方見丈夫心)이로다

눈이 내린 뒤라야 송백의 지조를 알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누가 장부인지 알 수 있다. 벌써 구십일의 안거가 지나 해제 날을 맞았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 결제를 하고 해제를 합니까? 진정으로 마음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대중들이 각자 한 입씩 생철을 씹었습니다. 얼마나 물러졌는지는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고인의 말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혹독한 추위를 지내봐야 어느 것이 군자인지 알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대중들은 분명 마음속에 설산수도의 자세로 정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해제하는 대중들은 수행자의 지조를 지녀야 합니다.

생철 같은 공부가 조금 물러졌다고 쉬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다시 단단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일하게 하라는 말을 간곡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제니 해제니 하는 말은 지혜롭게 완급을 잘 조절하라는 뜻이지 놓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아 다시금 다잡아 보세요.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고 분별력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그 맑은 눈앞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만 그것을 잡으려 하면 멀어져 버리는 그 신기한 물건이 무엇인지, 실체를 찾는 대중들은 각자 대력백우(大力白牛)가 되어서 허수아비에 속지 마십시오. 그 허수아비의 펄럭거림에 속아서 배고픔에 허덕이는 어리석음은 면해야 할 것입니다.

고초폐의화작인(枯草弊衣化作人)한데  
야금산수총의진(野禽山獸總疑眞)이라  
가우유력겸명안(家牛有力兼明眼)하니  
직입전중각우신(直入田中喫偶身)이로다.

마른풀 헤진 옷으로 허수아비를 만들었더니 들새 산짐승들이 모두 긴가 민가 하네. 우리 집에 힘세고 눈 밝은 소가 한 마리 있나니 성큼 성큼 밭으로 들어가 허수아비를 먹어버렸도다.

해제하고 나서는 대중들은 당당하게 본분을 향해 나가 보세요. 그랬다가 영축산으로 다시 돌아와 살찌고 맛난 향기로운 풀만 먹는다는 백우처럼 참 선지식이 되어 인천(人天)의 스승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공강해개광취(虛空江海皆光翠)하고  
우주삼라총법산(宇宙森羅總法山)이로다.

허공과 강 바다가 모두 푸르게 빛나니 우주삼라가 온통 법의 산 일세.

출가재일(出家齋日)

고타마 깃달다는 카필라 성에서 사문유관(四門遊觀) 끝에 생로병사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출가를 단행하였고 6년간의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불자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출가는 범어로 ‘프라와라지타(pravrajita)’라고 하며, 부처님 당시 인도 사회에서는 번뇌에 얽매인 속세의 생활을 버리고 수행자의 생활에 들어가는 출가사문(스라마나, Sramana)이 많았다.

《밀린다왕문경》에 보면, 출가의 목적에 대하여 나선 비구(那先比丘)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 “대왕이시여, 우리들은 이 괴로움이 멀하고 다른 괴로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출가했습니다. 대왕이여, 우리들 최상의 목적은 완전한 열반의 경지입니다.”

출가의 목적은 완전한 열반의 경지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나선 비구의 말은 수행자의 본분사가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오복전경(五福田經)》에서는 출가의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설하고 있다. 즉, 출가는 ① 생사를 벗어나려는 마음을 내어 수도(修道)를 하기 위함, ② 사치를 버리고 법복(法服)을 입기 위함, ③ 목숨을 던져 도법(道法)을 따르기 위함, ④

모든 애증(愛憎)을 버리고 사랑도 미움도 초월(超越)하기 위함, ⑤ 대승법을 간절히 구하여 중생을 건지기 위함이라고 하여 수행과 중생제도에 출가의 뜻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 경전에서는 4종 출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첫째, 몸은 출가했으나 마음은 출가하지 않은 애욕의 경계, 둘째 처자를 거느리고 비록 출가는 하지 않았으나 애욕의 경계에 몰들지 않음이니 몸은 집에 있으나 마음은 출가한 사람, 셋째 처자를 거느리고 마음으로는 탐내기를 그치지 않으니 몸도 마음도 출가하지 못한 사람, 넷째 바른 믿음으로 출가하여 청정한 법려(法侶)에 끼고 모든 애욕의 경계에 애착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는 몸과 마음이 함께 출가한 사람이라 이른다.

따라서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삭발과 염의·계율에 의한 좁은 의미의 출가만이 출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출가는 자기자신의 해탈만을 위한 탈출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기 위한 내 결단의 길이기도 하다. 깨달음의 성취 후, 고통 많은 이 사바세상으로 돌아와 그 괴로움의 현장에서 번민·갈등하는 중생들에게 그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 주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 이는 산의 정상에 도달한 자가 하산하여 등산하려는 초심자에게 등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

## 출가, 중생의 집에서 여래의 집으로 가는 여행

### 1. 새봄에 맞이하는 출가제일

3월은 갯빛겨울에서 파릇한 새봄으로 가는 계절이다. 불자에게 올 3월은 계절적 변화뿐만 아니라 종교적 의미의 전환을 되새기는 시간이다. 바로 출가제일(음력 2월 8일)과 열반제일(음력 2월 15일)이 3월에 있기 때문이다. 출가와 열반은 붓다의 삶에서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순간이자 삶의 일대 전환을 상징한다.

주지하다시피 출가(出家)란 ‘집’으로 대표되는 세속과의 인연을 끊고 구도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옛 스님들은 출가에 대해 ‘친족과 이별하고 사랑하는 이와 헤어져 세속을 버리고 도에 들어가는 것(辭親割愛 棄俗入道)’이라고 했다. “치문”에서도 ‘삼계의 무상함을 싫어하며, 육친의 지극한 사랑을 여의고, 오욕의 깊은 애착을 버리는 것’이 출가라고 했다.

출가에 대한 이 같은 정의는 부처님의 삶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싯달타(Siddhartha) 태자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직시하고 커다란 충격에 휩싸인다. 하지만 범부들은 나고 죽음을 거역할 수 없는 운명으로 수용하고 초로(草露)와 같은 세속에 안주한다. 싯달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일생의 과제라고 생각했다. 태자는 자신에게 보장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출가를 결심한다. 물질적 풍요와 권력도 그의 출가를 가로막을 이유는 되지 못했다. 그런 것들은 실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욕망에 의해 투영된 환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환영에 현혹되어 있는 사이 불현듯 죽음의 그림자가 닥쳐오고, 순간 갈 곳을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떨어지고 만다. 이것이 싯달타가 세속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노마 강을 건너 가난한 고행자가 된 이유다.

### 2. 범부의 집에서 여래의 집으로 가는 여정

부처님의 삶을 통해 출가란 철저하게 세속의 무상(無常)을 자각하고 그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출가란 ‘세속을 등지고 진리를 따르는[理將俗反]’ 삶이다. 물론 세상은 감각적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에 삶은 짜릿한 흥분으로 넘쳐나는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욕망의 베일을 걷어내면 우리들의 삶은 어제의 반복과 같은 무료한 일상의 연속이다. 출근해서 퇴근하고, 시무식과 중무식을 되풀이하며 그렇게 하루와 1년을 반복한다. 어쩌면 인간의 삶은 산꼭대기로 바위를 운반하는 형벌을 받은 시지프(Sisyphus)의 운명과 다를 바 없다. 산 위로 옮겨진 바위는 다시 골짜기로 굴러 떨어질 것이므로 형벌의 본질은 무가치한 일상을 영원히 되풀이하는 것이다.

중생의 삶 또한 무료한 일상에 짓눌린 감동 없는 나날의 연속이다. 물론 열심히 돈 벌고 명예와 권력을 잡았다고 강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 서면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만다. 평생을 쉬지 않고 아등바등 쌓아 온 것들이 일순간 무너져 내린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삶의 가치를 강변할 수 있을 것인가? 출가는 것처럼 무의미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전이며,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안전한 집을 짓는 과정이다. 그 집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집[無爲舍]이며, 모든 이웃들과 함께 사는 집이기도 하다. 이처럼 출가는 원대한 종교적 이상을 찾아가는 것이므로, 그 길에는 진리를 향한 열정과 고원한 이상이 요동친다. 자질구래한 일상사에 목매다는 범부의 삶은 여래의 집으로 향하는 출가를 통해 비로소 거룩한 보살의 삶으로 전환된다.

물론 무가치한 삶의 굴레는 현생의 삶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시지프의 형벌에 대한 불교적 개념은 바로 생사윤회의 굴레다. 생사윤회의 굴레는 죽음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완전한 속박의 연속이다. 출가는 바로 그 윤회의 속박을 박차고 나서는 자유의 몸짓이다. 여기서 출가는 삶의 무상성(無償性)을 깨닫는 것에 머물지 않고 생사윤회를 벗어나 해탈의 세계로 가고자 하는 고원한 여정이 된다. ‘출가는 삼계의 집에서 벗어나는 것(出家者 出三界家)’이라는 고인의 말씀은 이를 두고 이르는 말이다. 삼계의 집은 설사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우리가 안주할 곳이 못된다. “법화경”에 따르면 그 집은 ‘불타는 집[火宅]’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출가는 생사의 속박에서 벗어나 해탈로 가는 길이며, 욕망으로 불타는 집을 나와 부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는 여행이다. 그래서 옛 스님들도 출가란 ‘삼계의 집에서 나와 여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出三界家入如來家)’ 이라고 했다. 여래의 집이야말로 고행(苦海)의 거친 파도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며,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화엄경”에서는 ‘일체중생이 세속의 집을 나와(出世俗家) 여래의 집에 머물 것(住如來家)’ 을 발원하고 있다.

### 3. 재가자의 삶과 출가

생사의 바다를 건너 여래의 집에 안주하는 것은 모든 불자의 목표이므로 출가 또한 모든 불자의 당위가 아닐 수 없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출가는 삭발염의라는 외형적 모습에만 갇혀 있지 않다. 만약 출가가 머리 깎고 절에 머무는 것으로 완성된다면 출가는 소수 수행자만의 이야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 출가는 재가자들과는 무관한 일이 되고 만다. 출가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번뇌에 속박된 중생들을 탈주시키는 해탈의 길이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운서주공(雲棲株宏) 스님의 말씀을 눈여겨 볼만하다. 스님은 “죽창수필”에서 출가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했다. 첫째, 재가출가(在家出家)로 비록 부모와 처자를 두고 세속에 살지만 마음은 항상 도에 두고 번뇌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둘째, 출가재가(出家在家)로 몸은 출가하여 절에 있지만 마음은 명리에 골몰하며 속인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셋째, 재가재가(在家在家)로 세속에 살면서 평생 해탈할 생각을 내지 않는 것이다. 넷째, 출가출가(出家出家)로 출가하여 절에 살면서 평생 한 생각도 물러남이 없는 것이다.

물론 이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몸과 마음이 함께 출가한 ‘출가출가’ 이고, 가장 나쁜 것은 몸과 마음이 세속에 집착하는 ‘재가재가’ 일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경우는 덕이 훌륭한 자와 불교와 담쌓은 범부에 대한 것이므로 논의의 대상이다. 문제는 몸은 출가했지만 마음은 세속에 있는 경우와 몸은 세속에 있지만 마음은 출가한 경우다. 겉모양만 따진다면 마음이야 어떻든 머리 깎고 승복 입은 자를 출가자라고 해야 한다. 하지만 주공 스님은 그런 출가는 불법을 모르는 범부보다 못하다고 했다. 따라서 비록 몸은 세속에 있는 속인일지라도 마음이 속진(俗塵)에 물들지 않는다면 그것이 출가의 진정한 의미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여기서 출가는 그 본질이 세속을 떠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속에 몸담고 있는 재가자에게도 문호가 열리게 된다. 혜능 스님도 수행은 세속에서도 가능하며 꼭 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在家亦得 不由在寺) 했다. 진리는 형상에 갇혀 있지 않다는 “금강경”의 말씀처럼 출가 역시 외형과 신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세속에 있어도 마음이 깨끗하다면 그곳이 곧 출가의 공간이며, 머리 깎고 절에 있어도 마음이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곳은 칠혹 같은 세속과 다름없다. 따라서 순간순간 욕진경계로부터 초연해 지는 것이 삼계의 집을 벗어나 여래의 집으로 가는 출가이다. 비록 몸이 가정과 사회에 있어도 마음이 해탈을 지향한다면 재가자도 여래의 집으로 가는 여행에 동참하는 것이다. 출가는 몸이 세속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명번뇌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설법”지에서 발췌; 서재영·

## 나를 죽이려는 창칼을 향기로운 꽃잎으로 ...

세계의 거의 모든 종교가 “고통에 빠져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정말 그렇다면 좋은데, 실상은 문제가 많다. “다른 종교는 모두 잘못되어 있고, 내가 믿는 종교만 옳고 바르며 구원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면서 다른 신앙에 대해 비방하고 노골적으로 “무너뜨리겠다”는 협박까지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서 이 잘못된 신앙관을 널리 퍼뜨리고, 그래서 ‘세상을 평화롭게 해야 할 종교’가 세상을 혼란스러운 투쟁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일부에서는 “종교는 모두 아편이다”는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여러 종교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더욱 종교 지도자들이 말 한 마디를 잘못할 경우 매우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조심 또 조심해야 하지만 갈수록 좋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얼마 전에는 재외공관장 부인들이 모인 공식 행사장에서 대통령 부인이 십자가 목걸이를 눈에 확 띄이게 한 사실이 알려져 안타깝게 하더니, 이번에는 꽤 큰 교회 목사가 설교 시간에 노골적으로 이웃 종교를 비방 비하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해대서 다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여러 언론에 소개된 내용을 보니 그 목사는 교회 설교 시간에 “참다운 구원은 오직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뤄진다”면서 “석가나 공자 · 맹자에게는 구원이 없으니 절간에 성경 보내기 운동을 해야 한다. 도대체 불경에는 입을 내용이 없다. 절에 성경을 보내면 스님들이 감복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스님 목사’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 선두적인 역할을 할 우리 교회가 공산당도 깨부수고 불교도 깨부수고 미신과 우상도 깨부수는 선봉장이 되어야 한다”고도 했더니, 자기 교회 신도들에게 타종교를 부수고 무너뜨리라는 폭력을 선동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발언이 소개된 이후 불교계 단체와 언론뿐 아니라 개신교계의 일부 언론에서도 이 발언을 비판하는 글이 나왔다. 나는 이와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미친 사람이군!”하며 웃어넘기고 말았지만, 불교계에서 이 문제를 두고 바깥 세상에 혹 ‘홍분’하는 듯이 비쳐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어쩌면 대통령 부인이 십자가 목걸이를

드러나게 착용한 것이나 이번 어느 ‘웃기는’ 목사의 타종교 비방 비하 발언은, 심지어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같은 개신교인들 사이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올 줄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했을지 모른다. 다른 종교인들을 자극해 흥분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 종교인들을 더욱 결속시키겠다는 나름의 계획이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 ‘웃기는’ 목사의 망언 소식을 들으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직전 그 깨달음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마라(Mara)와 그에 대한 부처님의 대응을 떠올렸다.

세 딸의 미모와 교태는 일순간 허물어졌다. 그녀들의 곱던 피부가 검게 변하더니 푸석푸석 주름이 지고, 온몸 구멍마다 오물이 흘러나와 쿼퀴한 냄새를 풍겼다. 마라의 딸들은 통곡하며 보살 성도 직전의 부처님 앞에서 사라졌다. 의기소침한 노파의 모습으로 돌아온 딸들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희는 보았습니다. 보름달처럼 맑고 환한 얼굴, 진흙 속에서 솟아오른 연꽃 같은 모습, 아침 햇살처럼 산뜻하고 수미산처럼 의젓하며 타오르는 불길처럼 매서운 위엄, 그분은 분명 생사의 속박을 벗어나 모든 중생을 구제할 것입니다. 아버지, 그분에게 대항할 생각은 그만두세요. 수미산이 무너지고 해와 달이 떨어진다 해도 그분은 꿈쩍도 하지 않으실 겁니다.”

마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보리수 아래 앉은 보살을 굴복시키기 위해 마라는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의 모든 군대와 무기를 동원하였다. 악마의 군사들은 살행이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들었다. 그러나 보살은 어떤 적의도 품지 않았다. 마라는 폭풍과 회오리바람을 일으켰지만 보살의 옷자락도 흔들지 못했고, 폭우를 퍼부었지만 이슬방울만큼도 보살의 옷을 적실 수 없었다. 바윗덩이도 불덩이도 보살 앞에서는 꽃다발로 변했으며, 쏘는 화살마다 꽃송이가 되고, 내려치는 예리한 칼과 창은 꽃잎이 되어 흩어졌다. 재와 모래와 진흙을 퍼부었지만 향기로운 전단향 가루가 되어 보살의 몸을 단장할 뿐이었다. 어둠과 공포는 밝은 태양 아래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했다. 분을 이기지 못하는 마라에게 보살은 도리어 연민을 느끼고 있었다. 협박과 폭력도 효과가 없자 마라는 큰 아량이라도 베풀다는 표정으로 거만하게 말했다.

“인간이 누리는 즐거움이 싫다면 하늘나라로 올라오시오. 내가 누리는 이익과 즐거움을 그대와 함께 하리다.”

“마라야, 그대가 누리는 즐거움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는 과거에 보시한 공덕으로 육계의 지배자가 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다시 삼악도에 떨어져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부처님의 생애 편찬위원회, 『부처님의 생애』, 조계종출판사, 104~105 쪽)

그 목사가 “불교를 깨부수겠다”고 했었지만, 그렇게 쉽게 깨부수어질 정도로 약하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안다. 마라가 보내는 군사들이 쏘아대는 화살 · 창 · 칼이 꽃이 되어 흩어지고 그들이 퍼부은 재와 모래는 전단향 가루가 되어 부처님 몸을 향기롭게 단장하지 않았던가 말이다.

깨달음을 이루기 전의 부처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도 그 어리석은 사람을 안타깝게 여겨야 하지 않을까? 잘못 배워서 자신을 어둠 속으로 몰아넣고, 이제 다른 사람들까지 그 어두움으로 끌어들이려고 발버둥치는 그에게 연민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래도 과거에 선업을 쌓아 3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인간 세상에 태어난 그가 이번 생애 쌓은 업으로 다음 생애도 좋은 곳에 태어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안쓰럽지 않은가?

우리부터 먼저 흥분을 가라앉히고, 사실 그대로 살펴보자.

“그가 해대는 욕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그 욕이 다시 누구에게 돌아갈까?” 답은 너무 분명하다.

향산 이병두 거사

## 진짜와 가짜

### 놓는 순간 드러나는 진짜 모습

산스크리트어의 아바타-라(avataara)에서 유래된 ‘아바타’라는 제목에 끌려 아주 오랜만에 극장엘 갔었다. 사람들은 대개 3D라는 입체 형식에 환호하고, 너무나 탁월한 상상력에 박수를 보내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내겐 장자의 ‘나비 꿈’과 불교의 ‘천백 억 화신’이 보였다. 우리가 녀를 놓고 있는 사이에, 그들이 우리 보물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영화가 진행됨에 따라 나는 미국에서 새로 편찬한 너무나도 컬러풀한 대방광불화엄경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아바타(avatar)’는 불교나 힌두교의 화신(化身) 혹은 현시(顯示)를 뜻한다. 이것이 인터넷의 가상공간 가상현실에서는 운영자를 대신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을 뜻하는 말로 이미 친숙하게 사용된다.

우리 일상에서의 가상현실은 꿈이라는 것을 통해 익숙하지만, 꿈은 손에 잡히지도 않거니와 마음대로 고칠 수 없다. 그런데 컴퓨터의 가상현실은 실력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에 사람들은 게임에 빠져들게 된다. 손에 잡히는 것 같은 착각의 효과다.

아바타는 장자의 스토리텔링을 떠올리게 한다. 나비의 꿈을 꾸고 난 뒤 장자는 독백한다. “주(周)가 나비의 꿈을 꾸는 것인가, 아니면 나비가 주(周)가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용병과 아바타의 관계를 보면 대전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용병이 아바타를 통해 나비족으로 변신한다. 이때의 아바타 나비족은 어디까지나 가짜다. 그런데 점차 그 경계가 모호해진다. 용병인가 나비족인가? 끝에 가면 용병의 생명은 아바타였던 나비족으로 옮겨가고 용병은 죽는다. 이제는 용병이 가짜다. 그럼 무엇이 진짜일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힌다고 진실 아나  
잡으려는 모든 것 가짜임을 알아차려야  
문득 종경선사의 다음 계송이 떠오른다.

이루고 변화한 몸 진짜 아닌 가짜 몸(報化非眞了妄緣), 진리 몸 청정해 가없이 넓도다(法身清淨廣無邊). 물 있는 곳엔 달 모두 나타나고(千江有水千江月), 구름 없으니 온통 하늘뿐이로다(萬里無雲萬里天).

용병도 아바타도 나비족도 임시로 만들어진 인연일 뿐이다. 영화에서는 근원적 생명을 ‘에이와’라 칭했던가. 다시 아바타는 싯다르타가 설파한 만물동근(萬物同根)의 향기를 느끼게 한다. 도처에 그런 코드를 숨기고 있는 것이다. 나비족으로 사는 길은 모든 존재와 바로 소통해야만 한다. 나무도 새도 짐승까지도 하나의 생명의 뿌리로 연결되어 있다. 감독 카메론은 판도라라는 행성을 내세워 마음의 탐구를 떠났던 것처럼 보인다. 마음만큼 판도라에 맞아 떨어지는 것이 또 있겠는가.

“무엇 때문에 왔느냐?” “배우러 왔습니다.” “이미 가득 찬 잔을 채우기란 힘들지.” “저의 잔은 비어 있습니다.” 누가 이 대화를 화두 참구하듯이 생각하겠는가? 아바타에서는 바로 이런 불교적인 메시지를 무수히 던지고 있다. 알거나 말거나. 아바타가 쫓던 햇살이 꺼지고 숲이 다시 안정을 되찾았을 때, 어둠던 숲은 제각기 빛을 발하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빛났다. 신기한가? 마음의 눈이 열리면 풀잎마다 부처를 볼 수 있고, 부처님의 걸음걸음 연꽃이 솟는 것도 볼 수 있으리니. 한 번 시도해 보구려.

당신이 지금 진짜라고 붙들고 있는 것이 가짜라는 생각은 해 보지 않았는가? 놓고 보면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들이 가짜였음을 알 수 있고, 그 순간 세상 모든 것은 진짜의 모습을 드러낸다. 하지만 사람들은 끝내 고집한다. 지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이 진짜라고.

서울 개화사 주지 송강스님 칼럼

## 이런 스님 없나요?

미국에 온 지 3년이 지났다. 이 기간 동안에도 텍사스, 피닉스, 메릴랜드, 포틀랜드, 리노 등에 계셨던 스님들이 떠났다. 많은 스님들이 한국에서 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떠나는 곳이 미국이다. 나도 미국에 오기 전부터 이곳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 그러나 말만 들어서는 실감이 나지 않는, 그런 미묘한 어려움이 미국의 한국 불교계에는 엄존한다.

스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스님과 미국 불자 간에 존재하는 지대한 간극 때문이다. 그 간극은 스님과 신도들이 서로를 잘못 알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한국에서 온 스님은 미국에 사는 신도를 ‘한국 불자’라는 생각으로 신도들을 대하고, 미국 신도들은 한국 스님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스님’으로 대하는 데서 오는 간극이다.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지독히도 심각한 문제점이다. 이 간극은 어쩌면 긴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종단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아무리 큰스님이라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우선 미국의 절은 한국의 절처럼 그런 모습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의 한국불교 역사를 대략 50여 년으로 보는데, 초창기에 열린 역사가 긴 몇 개의 큰 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절은 몇몇 뜻 맞는 신도들이 인연 있는 스님을 모시고 와 꾸민 것이다. 창건주가 셋도, 넷도 되고 심지어 신도 전체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된다. 그들이 살다 뜻이 안 맞으면(강력한 구심점이 없으면 대중의 뜻이 하나로 맞는 건 불가능하다) 헤어지게 되고, 떠난 사람들은 또 절을 새로 낸다. 그 절이라는 것이 일반 주택 하나를 빌려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다. 그리고 다달이 집세를 내야 하는 ‘렌트 하우스’이다.

집세가 만만치 않다. 그 집세를 책임지고 잘 꾸려나가야 하는 것이 스님의 몫이다.

한국 스님들은 대체적으로 돈 얘기는 죽어도 못한다. 그렇다고 신도들이 알아서 하느냐, 절대 아니다. 그 와중에 스님과 신도 간에 골이 생기고, 스님이 떠나고 새 스님이 오시고, 그렇게 절이 없어지고 다시 생긴다. 신도들은 절이 있으면 좋지만, 그 절을 책임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스님도 그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한국 스님’이기 때문이다. 집세를 안 내면 좋겠다 싶어, 스님이 어찌어찌 절을 사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다달이 들어가는 용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결국 손 털고 물러난다. 이것은 하나의 패턴이다.

이번에는 스님과 신도의 관계를 살펴보자. 이름하여 창건주들은 스님은 월급 받고 포교라는 일을 하는 전문직쯤으로 이해하고 있다. 어디서 비롯된 건지 와서 보니 그렇다. 스님은 물론 이런 사실을 추호도 모르고 온다. 그들은 미국에도 한국과 같은 ‘절과 신도’가 있을 것이고, 자신은 그저 ‘중노릇’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온다. 그러나 이들은 스님을 모른다. 승복 입고 머리 깎은 사람이 스님인 것은 알지만,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전혀 모른다. 예를 들면 ‘마늘은 안 드세요? 왜요?’ 하며 기절할 듯이 놀란다. 스님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으면서도 스님에 대한 잣대는 있다. 일단은 영어를 잘 할 수 있어야 한다. 운전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차도 사고 혼자 살아갈 돈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왕이면 특기도 있고, 도력도 높으면 좋고, 말주변도 좋아야 하고, 아프지도 말아야 하고, 이슬만 먹고도 살아야 한다.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스님상이다.

이렇게 스님한테 바라는 것은 많으면서 어떻게 대우해야 하고, 절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지극히 기본적인 법도를 배운 적이 없다. 그걸 미처 파악하지 못한 스님은 자신 앞에 있는 신도들이 꽤 씹하다고 여긴다. 아무 것도 모르는 불자는 야단치는 스님은 성격이 좀 안 좋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가공할 간극들은 밥 먹는 데서부터 화장실 가는 일에 이르기까지 처처에서 발견되고 발생한다.

미국에 온 스님들은 마치 황야의 무법자처럼 어디서 무엇이 닥칠지 모르는 상태에서 홀로 삶을 시작한다. 사방에 숨어 있는

위험을 상대하면서 저 들판을 걸어가는 것이다. 어디다 말 붙일 사람도 말을 알아듣는 사람도 없어,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 되면, 스님들은 엎드려 생각한다. ‘내가 여기서 도대체 왜 이려고 있지?’

과연 백년 뒤에도 미국에 한국불교가 있을까? 좀 더 나아진 모습으로 있을까? 불자 수는 늘어날까? 잘은 모르겠다. 그러나 새크라멘토 영화사 신도들은 지난 3년간 이 중한데 두들겨 맞고 꾸중을 들으면서 이제 겨우 불자가 되었다. 불자가 되어 정말 행복해졌다고 한다.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중을 죽어라 붙들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나의 경험으로 확신컨대, 미국의 한인 신도님들은 스님들이 제대로만 가르친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불자로 변신한다. 포교에 사명감을 가지고 불교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스님이 필요하다. 저 영화 ‘미션’에 나오는 선교사처럼 불모의 땅에 처음 한국불교를 알리러 온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땅바닥에 엎어질 각오가 되어 있는 스님이 지금 미국에는 절실하다. 승랍이나 법랍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걸고 포교할, 그런 각오를 가진 스님 말이다.

영화사 동진스님; 월간 불광에서 발췌

## BUDDHANARA TEMPLE (佛國寺) 경인년 정초 칠일 기도 동참자 명단

천 개의 해가 떠서 비추듯  
한없이 맑고 깨끗하신 부처님.  
새해가 열리는 이 아침에 고요히 합장하고,  
저희는 새 모습으로 발원합니다.

무한 공덕의 축복으로 태양은 떠오르고,  
빛나는 생명 지혜, 끝없는 자비 덕성,  
넘쳐 나는 희망과 용기의 햇살이  
찬란히 펼쳐옵니다.

참 생명의 불성 공덕 드러내기 원하며  
저의 원력 더 큰 지혜와 자비로 빛내주옵소서.  
부처님의 위신력과 가피 속에  
회구하는 착한 일들 원만하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불자님 가정과 좋은 인연 맺게 해주신 부처님 전에 감사 올립니다.

어떠한 역경이 닥치더라도 두 손 불끈 쥐고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어려움을 헤쳐 나가실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가득 하시길 부처님 전에 간절한 마음모아 축원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1) 무량화 문봉순; 2) Mark Miller, 여래성 Seonyoung Kim, Aidan Miller, Ryan Miller, 자비화 나홍렬; 3) 문성훈, 최윤영, 문현배; 4) 무영 김동하; 5) IL-Kwon Kim (김 일권), 장혜옥; 6) 김현웅, 김숙향, 김정아; 7) 도광 이찬혁, 이은정, 이지민; 8) 조남국, 현심행 김설아, 조민우; 9) 심용택, 능도성 한경련, 심상준, 심상완; 10) 강미자, 강용택, 관음성 강상숙, 강정철, 강현대; 11) 박정근, 이호임, 박지훈, 김우진, 박성원, 제임스 개스; 12) 최춘자, 허정석 (근일), 김원미, 허윤정, 허정민; 13) Debra Tak; 14) 범화행, 원준형; 15) 보문 안재현; 16) 성락 권혁만, 문수지 권효정, 진공 권순철; 17) Chuyun Kim, Yang S. Kim, Anne Kim, Jenney Kim; 18) Lawson Robinson, Woojin Robinson, Rigel Robinson, Kentaurus Robinson, Chiron Robinson, Lawson Robinson; 19) 이백승, 추형화, 이재우, 이상훈; 20) John J. Ahn (안중재), Jennifer L. Ahn (이정애); 21) 윤용덕, 범륜화 김인숙, 윤혜준, 윤일환; 22) 이 용성, 신 숙례, 이 상준, 이 상민; 23) 박 래경, 김 효례, 박 으뜸, 박 꽃별, 박 셋별; 24) 송 보영, 강 효정, 송 채원, 송 지환, 조 순옥, 권 효영; 25) 황 현식, 박 계영, 황 준우, 황 수연, 황 준길; 26) 김 태희, 신 동윤, 오 점순; 27) 신 통철, 임 정숙, 신 선양, 신 동호; 28) 김 태성, 이 금주, 김 준성, 김준협, 김 영화, 이 희영; 29) 진 중득, 이 정숙, 진 병학, 김 지영, 진 학, 진 옥진, 이 동규, 김 옥순; 30) 이 범도, 조 화숙, 이 주홍, 이 성훈; 31) 김 동수, 유 혜숙, 김 근만, 김 경목; 32) 박 인환, 유 현숙, 박 민지, 안 노미; 33) 홍 대선, 정 해주, 홍 준수; 34) 정 순범, 정 정순, 정 영환, 박 난례; 35) 백 유상, 류 정아, 백 옥태, 백 정이; 36) 박 광수, 김 효정, 박 은지, 박 병주; 37) 손 영찬, 김 효진, 손 명옥, 손 해립, 손 명호, 김 야모; 38) 유 행석, 이 경주, 유 동원, 유 하연; 39) 김 일선, 오 중민; 40) 민 정기, 송 혜숙, 민 경문, 김 기준; 41) 신 동화, 이 승민, 신 연수; 42) 안 대원, 김 상화, 안 형철, 안 형태; 43) 김 홍일, 천 정화, 김 동호, 김 단희; 44) 조 성기, 우주화, 조 지현, 조 원희; 45) 이 주형, 김 명옥, 이 상엽, 이 재용, 이 지선; 46) 송 령호, 이 인섭; 47) 이 득용, 이 경희, 이 지나, 이 지훈; 48) 안 애경; 49) 김 인주; 50) 민 정근; 51) 서 희선, 최 영숙, 서 현우, 서 현준; 52) 신 현곤, 이 규순, 신 은철, 신 은정; 53) 김 현준; 54) 김 혁준; 55) 이 지연, 한 기을; 56) 최 인협, 김 미현, 최 일석, 최 윤혜, 최 이조; 57) 유 영은; 58) 황 영귀; 59) 박 찬홍, 조 진화, 박 진우, 박 소현; 60) 유 영철, 박 필연, 유 재원, 유 현석; 61) 강 영순, 이 미애, 이 학진, 이 진아, 이 범학; 62) 윤 영목, 윤 주희, 윤 우진; 63) 장 용주, 옥 지수, 옥 지영; 64) 조 양임, 오 두혁, 오 가연; 65) 김 종수, 최 송순, 김 주호, 김 주성; 66) 강 경식, 박 정민, 강 태원; 67) 박 지혁, 양 주연, 박 수진, 박 미진; 68) 박영기, 김수영, 박새은, 박새한; 69) 김 동욱, 조 은미, 김 현준, 김 혜준; 70) 배제현, 최문선, 배 진, 배수진, 배민철; 71) 송완근, 임영애, 송미경, 송주열, 임대인; 72) 김 문호; 73)

보배심 김태순, 이은숙; 74) 김혜령; 75) 서만호, 유승연, 서정은, 서유영; 76) 정훈, 최옥자, 정주연, 정주은, 정동휘; 77) 이득용, 이정희, 이지나, 이지훈; 78) 김경모, 윤희경, 김태현, 김규현, 김이현; 79) 장기수, 정미, 강준일, 강종현; 80) 한정인, 장복도; 81) 백련선오스님; 82) 기계후인 유인갑 영가; 83) 청주후인 한원의 영가, 청주후인 한창호 영가 - 이상 83 가구-

날마다 좋은 날 되시옵고, 소원 성취 하십시오.

## 법회소식 NEWS

- 조지아주 부다나라 정기 법회는 부다나라 (불국사) 사찰이 조지아주에 창립될 때까지 매달 둘째주 일요일에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에서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계신 불자님들과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주지 선각 스님을 모시고 정기 법회를 가집니다. 관심있는 분들과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2009년 12월부터 새로운 법회장소는 Pinckneyville Park 에 있는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Room # 5 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정기법회는 매달 둘째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입니다.  
주소는 4650 Peachtree Industrial Boulevard, Norcross, GA 30071 입니다.  
구글에 찍으면  
4650 Peachtree Industrial Boulevard, Doraville, GA 30360 으로 나오는데 꼭 Norcross 로 오셔야 됩니다.
- 매달 2째주 일요일마다 갖는 애틀랜타 부다나라 정기법회 이외에도 신도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신도님 집에서 정기 모임을 갖습니다. 애틀랜타 지역 신도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3월 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All Saints Church School Basement 에서 “Socially-engaged Buddhism”을 주제로 불교 포럼이 열립니다. 부다나라 주지 선각스님은 Addiction (중독 증상)에서 벗어나는 불교적 지혜에 관해 발표 합니다. 포럼이 열리는 행사장 주소는 6419 Clemens, University City, MO 63130 입니다.
- 3월 23일 (음력 2월 8일) 은 부처님께서 왕궁을 버리고 인류의 스승이 되기 위해 출가하신 출가제일이고, 3월 30일 (2월 15일)은 80세로 약 45년간 전법으로 인류에 큰 발자취를 남겨주고 열반에 드신 열반제일 입니다. 이와 같이 3월은 출가제일과 열반제일이 함께한 의미있는 달 입니다. 불자님들도 마음을 새로이 해서 경인년 한 해 복권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수행정진 바랍니다.
- 경인년 2010년 2월 15일부터 2010년 21일 까지 정초 7일 기도를 83가족이 동참한 가운데 경건하게 봉행했습니다. 경인년 새해에 기도 올리신 모든 신도님들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장애를 뛰어 넘어 무량한 복을 누리시길 축원 합니다. 소원 성취 하십시오.
- 매달 3째주 전법 기도 법회때 마다 새로운 불교 찬불가를 배웁니다.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찬불가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불국사)주지 선각스님이 한국 불국사 후원회 정기법회 참석차 약 3주간 한국을 방문합니다. 후원회 정기법회는 4월 18일 셋째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갖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후원과 동참 바랍니다.

**2010년 2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202번 임술생 정유진, 255번 경자생 송부영, 493번 정미생 이희정, 494번 정사생 김선명.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첫째주 일요일에 있고 매달 동참비는 \$10.00 입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과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부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토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부처님 불사는 \$10,000(일천만원)이고, 한 평 불사는 한 평에 \$1,080.00(백 팔만원)입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미국 부다나라 (불국사), 또는 한국 불국회 로 연락 주십시오.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불 합 시 다.